

이코노&비즈 피플

취임 1년 김 장 학 광주은행장

“지역 금융주권 유지, 지역 영업 강화 역점”

“광주은행은 지난 1년간 저금리체제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내실있는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금융주권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든든한 향토은행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행장은 26일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올 상반기 46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목표 60억 원 이상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하반기부터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지역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행장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지난 2001년 광주은행이 우리은행에 편입된 이후 영업력과 조직문화가 크게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조직재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은행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행장은 특히, “취임하면서 ‘외형성장’이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은행, 지역민을 위한 은행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결심했다”며 “쉽지는 않았지만 경영시



주·전남지역에서 28%대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2~3년 내에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최근 서울지역 점포를 축소하고 인력을 광주와 전남에 집중 재배치한 것이나 오는 10월께 뱅크카(Bank car)를 도입하기로 한 것 등은 우리 지역 영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경영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행장은 정상적 영업활동 외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지역 금융지원책 마련과 지역인재 적극 채용,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당기순이익의 10% 상당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지역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영업전략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변화추세에 맞춰 점포환경을 개선하고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뉴(New)스마트뱅킹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오는 9월 전국 금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금융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 토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시 자동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동네 사랑나눔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가 건물을 활용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도서관’을 올 하반기 중 개관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행장은 “지난 1년 전 취임 때 ‘은행원으로서 살아온 인생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광주은행을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던 비장한 각오를 단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광주·전남에서 ‘향토은행 광주은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북은행으로 합병은 오해... 대주주 바뀔 뿐

경영성과 지역민에... 돈 떼이더라도 지역서 떼일 것”

템을 과감히 정리하고, 정도(正道)영업과 성과주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행장은 또 “올해 초 신년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무등산 일출을 보며 좋은 은행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다졌던 일, 그리고 2013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광주은행이 최초로 1등급을 획득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대형 시중은행을 제치고 가장 좋은 평가 등급을 획득한 것은 광주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매우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민영화 작업에 관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오는 10월 초 금융위원회가 광주은행을 JB금융지주 내 자회사로 편입하는 계획을 승인하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에 본점을 두고 ‘광주은행’이라는 고유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서 소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행장은 “광주은행 민영화는 광주은행이 전북은행으로 합병되는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오해로서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광주은행 민영화는 광주은행 주식 57%를 보유한 대주주가 정부에서 JB금융지주로 변경되는 것”이라며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 내 주력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일 뿐 흡수합병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행장은 이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투뱅크(Two Bank) 체제로 운영된

다”고 밝히고 “광주은행의 경영성과는 주주에 대한 일부 수익배당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지급처럼 지역과 지역민,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못박았다.

자금융과 관련 김행장은 “올 들어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민과 지역업체에 총 1조7000억 원을 신규 대출했다”고 설명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은행으로서 ‘만약에 돈을 떼이게 되더라도 광주·전남에서 떼이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



김장학 광주은행장이 2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호그룹, 금호고속 인수 난항

사모펀드 ‘떡튀’에 모기업 뺏길 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2년 금호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태 기업인 금호고속을 사모펀드인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금호그룹은 당시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지분 100%와 대우건설 지분 12.3%,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7% 등 핵심자산을 묶어 9500억원에 매각할 때 금호고속을 다시 인수하기 위해 2년간 매각유예와 우선매수권을 조건으로 삼았다. 금호고속 우선매수권은 이후 금호터미널로 넘어왔다. 기업이 어려운 처지에 몰려 핵심자산을 내놓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 그룹의 모태인 만큼, 다시 되사오겠다는 조건을 건 셈이다.

계열사 워크아웃에 추가 자금 힘들 듯

지역경제에 ‘원래 주인 금호에 돌려줘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그동안 선전이 세운 금호고속을 다시 사야 한다고 매년 강조해왔다. 금호터미널은 지난해 광주신세계에 백화점 건물과 부지를 20년간 보증금 5000억원에 장기임대하면서 금호고속을 인수할 자금도 확보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비싼값’을 제시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재매각에 나선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이익 극대화를 노리며 6000억원에 가까운 매매가를 시중에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은 금액이 너무 부풀려졌으며 날을 세우고 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가 금호고속을 인수하던 당시 가격은 3345억원이었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은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경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모펀드

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 추가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금호산업 등 주요 계열사가 아직 워크아웃 상태인 만큼 인수전에 무리하게 뛰어들기 어렵게 현실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고속은 그룹의 모기업이므로 다시 사오는 것을 전제로 팔았고 사모펀드가 대주주지만 실제 경영도 우리가 해왔다”며 “그런데 가격을 크게 올려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행위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호고속 지사도 또한 고가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여의도의 사모펀드(IBK투자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사무실을 방문, 고가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사무실 앞에서 사모펀드의 행태를 규탄하는 반대 집회를 1

시간여 벌였다. 김유상 직원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호고속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닌 제 3자에게 고가에 매각되면 수익을 위해 고가 배당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호고속의 수익성은 물론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선매수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 측에 금호고속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 역시 사모펀드가 ‘떡튀’ 행각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 관계자는 “금호고속은 지역 향토기업인데다 지역민의 정서와 맞닿은 기업”이라며 “만약 제3자가 인수해 금호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면 금호고속의 기반인 광주·전남의 애정도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원래 주인 금호고속으로 되돌아 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대기업 하반기 공채 시작 ... 작년과 비슷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달 말부터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들어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요 대기업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가장 먼저 하반기 공채=27일 현대차그룹이 주요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취업 지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신호탄을 쏜다. 상시 공채 제도를 도입한 현대차그룹은 인문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지원 부문 8일 두 차례에 나눠 인적성검사(HMAT)를 치른다. 연구개발·플랜트 부문에서 일할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는 10월9일 HMAT를 실시한다.

삼성그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

다.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는 10월12일 실시하기로 했다.

동부그룹,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등은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다음달 초에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대졸 신입 공채를 시행하는 회사를 비롯, 금호아시아나그룹,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은 다음달 중 신입사원 선발에 나선다.

◇채용규모 지난해와 비슷=삼성그룹은 올 하반기 4000~5000명 수준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올해 상·하반기 합쳐 지난해와 비슷한 9000명 정도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하반기에 1000명을 뽑는다. 대졸자 공채는 9~10월 시작할 예정이지만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임동률기자exian@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m²**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중음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m²**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6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m²(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급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중음
★ 사무실 적합, 전체 율수리
시세/분양가-4억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중음
전체 율수리, 주거경/사무실 겸용
★ 시세/분양가-2억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하천방향, 즉시입주 가능
매매-6500만원
-일시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매매
문의.010-3605-5000

아파트형 콘도/별장/펜션 분양
문의, 010-3605-50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쌍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56평 각각 1세대
-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 28평 - 90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56평 - 1억8천만원(융자 4600만원 포함)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일시불 지불시 파격세일!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